

navien

Vol.

144

2017 SUMMER



NAVIEN

SUMMER 2017 Vol.144

Contents




- 04 House Of Temptation | G43
- 10 Hobby of Honors | A Spectacular Lagoon
- 12 Space Environment | 천장
- 16 Trend
- 20 Life & Style | 시원함을 담은 화사한 공간
- 24 Housing History
- 28 NAVIEN Story
- 32 Special Issue | 옥상정원
- 34 News
- 38 SNS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NAVIEN 발행일 2017년 7월 1일 발행인 홍준기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사보 담당 홍보팀 이윤희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496 팩스 02-3489-2221

 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

G43

Design Studio: FADD Architects

Location: Gumpendorfer 060 Vienna



오스트리아 빈(Vienna) 중심에는 깊은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건물이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상위층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세련미 넘치는 공간을 구성했다. 건물 옥상의 확장과 함께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춘 약 60평의 고급스러운 공간은 호화로움을 베이스로 하며, 흠 잡을 데 없는 디자인과 아름다운 오브제를 적용해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고급스럽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이 공간들은 본연의 자재가 가진 컬러의 활용과 인위적이지 않은 공간 연출로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흰 벽과 오크목 소재의 바닥, 단순한 라인의 가구까지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심플한 라인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비교적 톤 다운된 컬러의 가구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차분한 느낌을 강조했다.

깔끔한 라인과 내추럴한 컬러 사용이 눈에 띄는 주거 공간은 똑똑한 공간 분리가 이루어진 침실, 화이트 톤의 정돈된 욕실, 인테리어 소품 포인트가 있는 거실까지 군더더기 없는 공간들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하루의 피로를 개운하게 풀어줄 미니 스파,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밝은 그레이 컬러의 향나무 사우나가 있어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 끝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휴식을 제공한다. 또한, LED 조명이 설치되어 더욱 화려하고 호화로운 Hammam(土耳其 목욕탕)이 있는데, 이는 독특한 분위기, 쾌적함과 함께 집에서도 마치 온천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오픈 스페이스 유형을 띄고 있는 이곳은 화이트 월과 미니멀한 생활 공간 등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경치를 자랑한다. 또한, 때론 비슷하고, 때론 대조적인 자재의 사용이 눈에 띈다. 문과 계단에는 같은 소재를 사용한 마감으로 공간의 통일감을 주었고, 파사드 문과 벽난로에는 각각 검은색의 철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다른 공간인 듯 한 공간인 오묘한 매력을 더했다. 그 결과, 우아함과 자연스러움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FADD Architects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며, 특유의 웅장하고 깔끔한 디자인 라인으로 인테리어와 건축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디자인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자재 본연의 모습, 환경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 건축의 명료성과 기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본인들만의 약속을 지켜가며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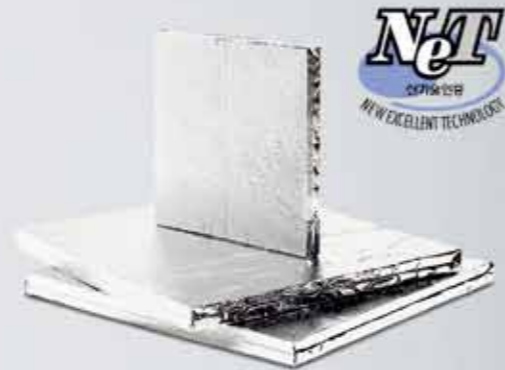
MARCO ACRÌ,
ANTONIO DI FOGGIA, FABRIZIO FASOLINO
by FADD Architects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성능 흡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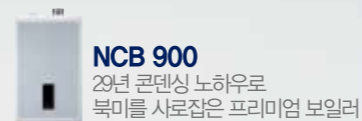
대싱 대싱 콘덴싱

북극곰을 춤추게 하고 싶다면



Join the 콘덴싱

콘덴싱보일러 1대 설치 시 1년에 CO₂ 약 576kg 감소 효과
이제,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콘덴싱을 켜세요



NCB 900
29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록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8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 차지 (2018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콘덴싱 29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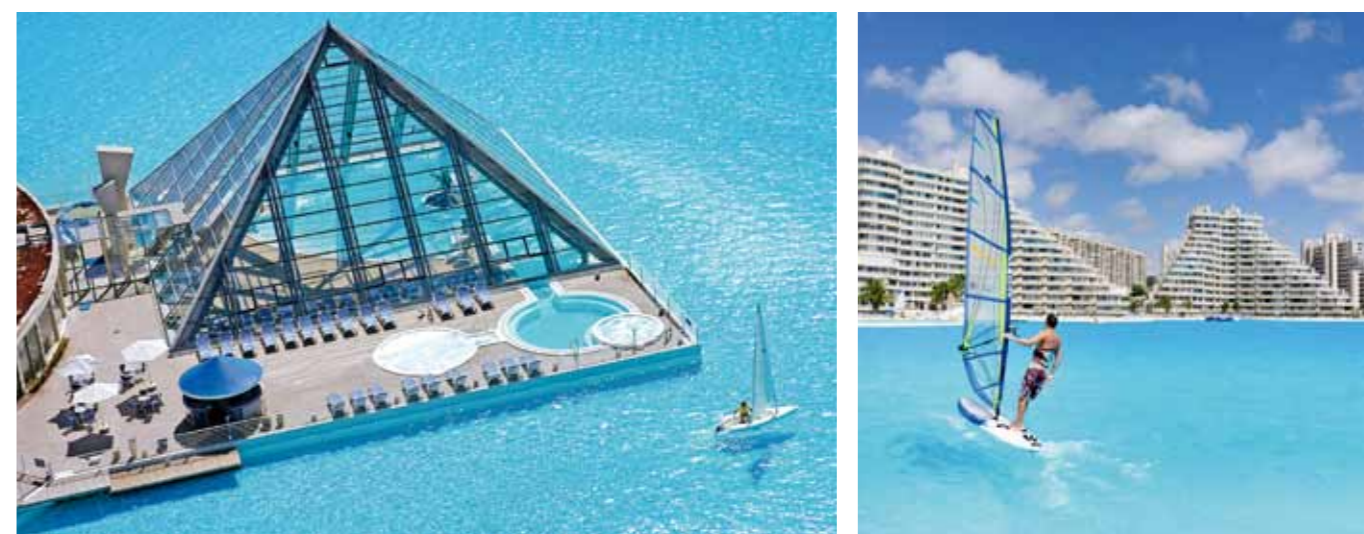
THE POOL AT SAN ALFONSO DEL MAR ALGARROBO CHILE

A Spectacular Lagoon

Apart from its large size, the lagoon has another spectacular feature: its waters have the transparency and intense turquoise colour of tropical s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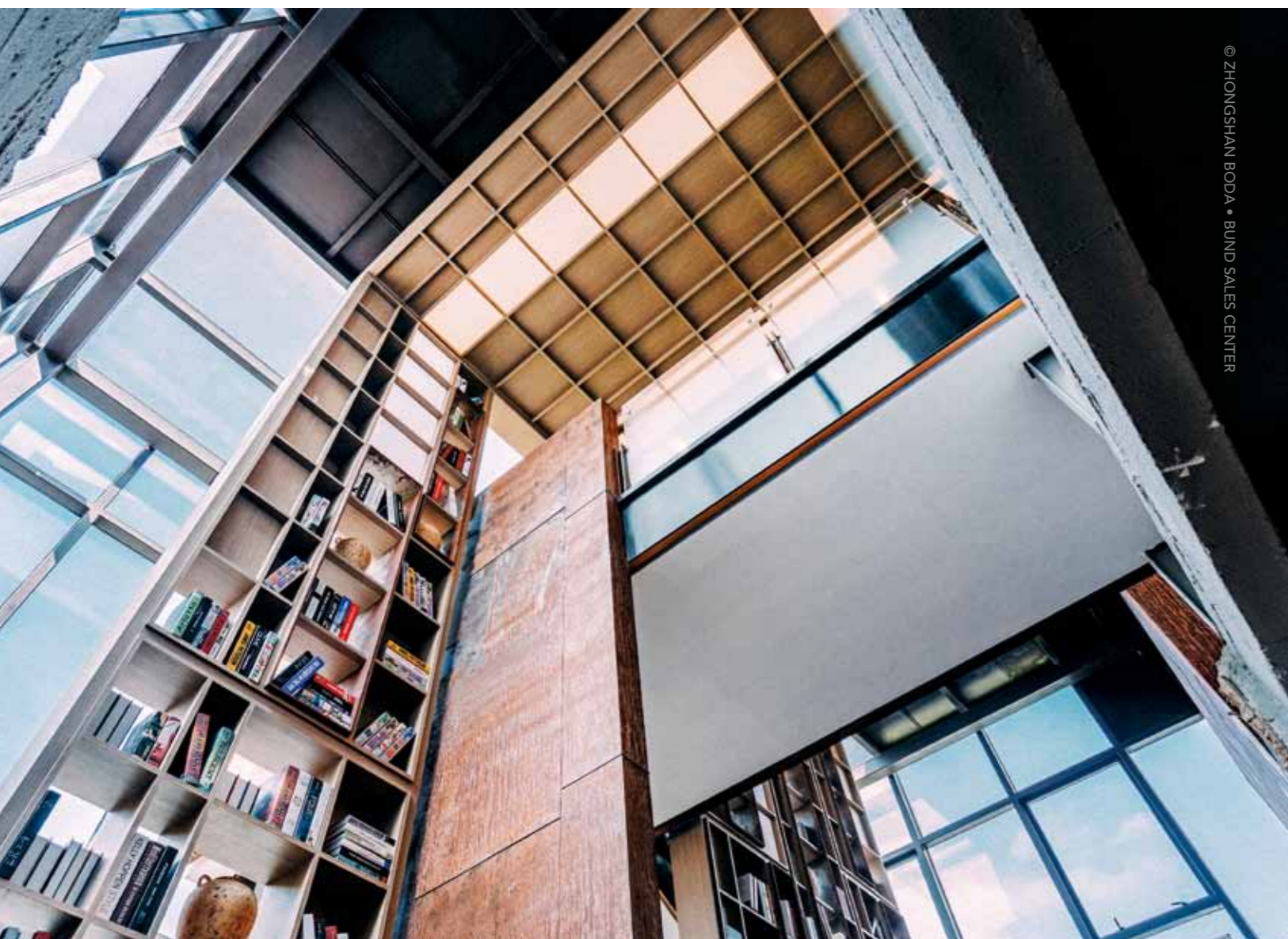
© WWW.SANALFONSO.CL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이 풀은 바닷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쩌면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칠레에서 만날 수 있는 '산 알폰소 델 마르(San Alfonso Del Mar)'의 풀은 그만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덕분에 넓디넓은 프라이빗 비치(Private Beach)에서는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공놀이를 하거나 해변에 누워서 쉬거나 등등 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관광객으로 가득 찬 해변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큰 전용 풀이니 말이다.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파빌리온(Pavilion)과 널찍하고 충분한 모래밭에 아름다운 풍경까지, 세계 최고의 풀이라는 찬사는 비단 규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천장 / 집안으로 내려온 하늘

천장은 공간을 나누는 벽들을 모아 하나의 공간으로 마무리 짓는 건축의 마지막 요소다. 기능적으로는 직사광선, 비, 바람과 같은 하늘로부터의 위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공간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런데 당장 집과 사무실의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천장을 쉽게 간과한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질감인지 또 어떤 높이로 만들어져 있는지 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잘 모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천장은 약간의 차이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크게 바꾼다.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 ZHONGSHAN BODA • BUND SALES CENTER



© UNIPLACES



하늘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는 건축 요소로서, 공간을 안전하고 아늑하게 만든 천장은 하늘의 다른 요소까지도 막아버렸다. 바로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빛, 달 빛과 별빛이다. 땅과 작물,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하늘을 막아버린 천장을 사람들은 불안하게 여겼다. 공간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자연이나 신(神)과의 유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천장에 어떤 상징적 요소도 남지 않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천장으로 유발된 이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천장을 하늘과 닮게 만드는 것이었다. 천장에 하늘과 비슷한 색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부터 하늘과 닮은 둥근 모양의 천장을 만들거나 천장에 구멍을 내는 방식까지 그 표현 방법의 다양함과 관계없이 목적은 오직 천장을 하늘과 최대한 닮아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진짜 하늘은 아니지만 진짜에 버금가는 하늘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천장으로 하늘을 만드는 이런 행위는 방에 야광 별을 달아놓거나 태양을 닮은 상들리에를 설치하는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COPPER HEAD

천장을 뜻하는 영어 셸링(Ceiling)은 하늘을 뜻하는 프랑스어 씨엘(Ciel)에서 유래했다. 처음부터 하늘과 동일시 여겼던 고대의 전통에서 출발한 셈이다. 작가 수에토니우스는 '12황제 전기(The Lives of the Twelve Caesars)'에서 로마 네로 황제 시대 건축물의 천장을 천체의 운동을 모방한 둥근 천장이라 표현했다. 그 천장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별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넣었으며 심지어 천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회전운동까지 했다고 한다. 또 중세 성당의 돔 천장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금빛 별과 태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대저택에는 구름과 천사들이 그려진 천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천장의 모양은 보통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평평하고 곧게 뻗은 평지붕, 위쪽이 뾰족한 5각형 벽을 만드는 박공지붕, 박공지붕보다 양쪽 끝이 좁고 벽 위에 면구조가 하나 더 있는 모임지붕, 원뿔이나 원형으로 만드는 방형지붕, 한쪽으로 치우친 천장과 마름모형 벽이 특징인 외쪽지붕이 있다. 균일한 공간을 만드는 천장은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형태에 따라 공간을 구분해 주거나 비례감과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면적이 좁은 공간을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SPACE environment



베오사운드 셰이프 BeoSound Sh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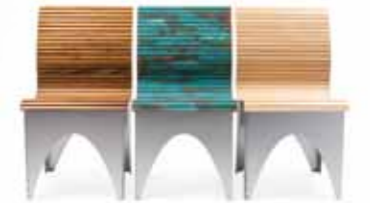
뱅앤올룹슨이 공개한 베오사운드 셰이프(BeoSound Shape)는 독특한 디자인의 사운드 시스템이다. 벽에 붙이는 모듈형 시스템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입체감이 있는 육각형의 모듈에 다양한 컬러까지 준비되어 있어 여러 개의 모듈을 이용해 마음껏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각 모듈은 36.4x32x11.1cm로 최대 11개의 앰프와 44개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다. 원한다면 벽 한 면을 완전히 채울 수도 있는 규모다.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블루투스나 구글 크롬캐스트, 애플 에어플레이를 지원한다.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벽면에 설치해 다른 방에서 동시에 같은 음악을 듣는 멀티룸 기능도 재미있는 요소다.

Bang & Olufsen(www.bang-olufsen.com/ko)

€ 4000 ~



올리에 체어 Ollie Chair



RPR(RockPaperRobot)은 키네틱 퍼니처(Kinetic Furniture)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자인&엔지니어링 부티크다. RPR이 새롭게 선보인 올리에 체어(Ollie Chair)는 전문 부티크의 제품답게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한다. 올리에 체어의 가장 큰 특징은 접힌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단순히 접히는 의자는 많다. 대부분의 접이식 의자는 그저 휴대가 편리하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라 보통은 창고에 두고 필요할 때만 쓰는 간이 의자로 여겨진다. 올리에 체어는 간이 의자라면 쓰기에 아깝다. 올리에 체어는 아름답게 접히고 의자로서의 기능도 훌륭하다. 접었을 때는 얇은 액자처럼 보여 벽에 걸어 두거나 기대어만 놓아도 보기 좋으며, 펼치면 놀랍게도 요추를 따라 흐르는 곡선이 나타나 기능성 의자만큼 편하게 앉을 수 있다. 튼튼한 알루미늄과 좋은 품질의 원목으로 만들어져 견고하며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RockPaperRobot(www.rockpaperrobot.com)

\$ 377 ~





루 보드 Lou Board



날씨가 풀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스케이트보드는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이자, 간편한 이동수단이다. 사용자들에게 무겁고 둔탁한 스케이트보드보다 가볍고 실용적인 스케이트보드가 당연히 사랑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들의 니즈에 적합한 새로운 스케이트보드가 있다. 스위스의 E-mobility 업체 So Flow에서는 슬림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기 스케이트보드 Lou Board를 개발했다. 배터리 칸을 데크 내부에 배치하고 모터를 휠 내부에 설치해 매끄러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Lou Board는 뛰어난 주행속도와 이동 거리, 안정감과 휴대성을 보장한다. 뛰어난 방수능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시간 충전으로 15km까지 주행하는 오랜 배터리 수명을 가진다. 또한, Lou Board의 App을 통해 주행 후에는 스케이트보딩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다양한 기능과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전기 스케이트보드 Lou Board는 즐거운 야외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So Flow(www.so-flow.com)

\$ 449 ~

깜빡 잊고 나왔다면~

NAVIEN Home IoT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원격 영상 보안은 물론 원격 냉난방 제어까지

그리스 산토리니의 시원함을 담은 화사한 공간

세미 클래식 인테리어로 우아함과 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며,
이는 여자의 로망이자 청량함의 대명사 산토리니가 떠오르게 한다.



주방: 민트와 블루 등 시원한 느낌의 파스텔 컬러를 사용해 화사한 느낌을 주며,
많은 물건을 깔끔하게 정돈하기 위해 수납공간에 신경 썼다.



2층 거실: 그리스 산토리니 해안가에 위치한 집의 느낌으로 꾸미기 위해 블루와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했다.
 테라스: 지붕이 없는 베란다였던 테라스는 페인팅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침실: 프로방스와 엔틱의 조화가 인상적인 침실은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며, 블루 컬러 포인트까지 잊지 않아 집 전체 공간의 통일성을 유지했다.
 아이 방: 아이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핑크와 차분한 블루, 창의력을 키워주는 퍼플까지 다양한 색을 사용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경동나비엔
온돌과 보일러의 만남 VI



온돌 난방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 동시에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난방 방식이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최소 15% 이상 높을 뿐 아니라 NOx와 SOx 등 유해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후 변화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된 CO₂ 감축을 위해 영국·독일·네덜란드를 위시한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정부 법제화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앞장서거나 의무적으로 콘덴싱보일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판매보일러 중 콘덴싱보일러의 점유율이 영국의 경우 85%, 네덜란드의 경우 95%에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2003년 11월 콘덴싱 기름보일러를 개발하고 신기술 인정제품인 KT 마크를 획득해 콘덴싱 가스보일러에 이어 기름보일러까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경동나비엔은 대한민국의 대표 보일러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 1위 달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 4년여에 걸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고객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한 끝에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온수 중심'의 야심작, '뉴콘덴싱 on 水'와 '세미콘 on 水'를 출시하였다. 이 신제품은 각 부문에서 최고 열효율 달성에 의한 가스비 절감은 물론, 기존의 보일러에서는 실현하지 못했던 온수의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키고 중온난방수 난방을 통한 'ASA 쾌적온돌난방 적응제어 시스템'을 적용, 온돌의 축열 특성에 따른 온도 널뛰기 현상을 완벽히 극복했다. 고객이 원하는 온수 온도와 쾌적 난방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보일러 사가 가지지 못했던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탄생시켰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좋아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Join the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우리의 온돌문화와 결합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지난 2005년 6월 독일의 칼스루헤(Karlsruhe) 대학과 DVGW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 세계 난방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결과는 바닥 난방 시스템 즉, 온돌에서는 콘덴싱보일러가 열효율이 가장 높으며, 내구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바닥난방 시 방바닥의 온도는 31℃ 이하가 되는 것이 인체에 가장 이로우며, 이에 따른 바닥난방에 가장 적절한 난방수 온도는 40~50℃로 콘덴싱보일러가 온돌 난방에 가장 적합한 난방 기술임을 입증했다. 경동나비엔은 온돌문화의 중추국 대표기업으로서의 높은 자부심과 함께 보일러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스마트 분리 난방으로 각자 원하는 꿀잠온도를 찾자

한 침대, 한 매트 위에서 자는 부부라도 각자 원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이제, 나비엔 온수매트의 섬세한 분리난방으로 따로 또 같이 쾌적한 온도를 즐기세요

-  국가대표 보일러의 온도제어 기술 그대로
경동나비엔의 온도제어 기술 NTC 테크놀로지로
보일러를 통해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  안전 또 안전! Safety 1st 안전 설계 시스템
차일드락/고온모드 알림기능/다중안전시스템으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경동나비엔만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행복나눔 콜센터 1588-1144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S/S 센터
-  경동나비엔의 원칙으로 만든 프리미엄 매트
베트라스의 인력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라센 매트와
관리함과 간결함이 극대화된 슬림 매트를 만나 보세요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1% 차지 (2016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나비엔 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미세먼지의 공습, 반전의 히든카드는 우리집에?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모여 황금연휴가 이어졌던 지난 5월 첫 주, '밖으로' 향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어려운 경기 속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업체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손님과 매출로 인해 울상을 짓게 만들었던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특하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일기예보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가전 제품 구매 시 '선택'의 영역이었던 공기청정기도, 요즘에는 거의 '필수' 구매 항목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이제는 놀이터에 미세먼지 예보를 반영해 신호등 형태로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아파트까지 생겨날 예정이라고 하니,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염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욱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미세먼지의 공습이 당장 조금의 불편을 이겨낸다고 해소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돌아올 여름 휴가에도, 천고마비의 가을에도, 다시 찾아올 겨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이상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에 의지해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 외에 "당장, 나 스스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노후 경유차 퇴출' 정도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해도,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고, 전기차를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감내해야 할 불편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결국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가끔 영화와 같은 일들도 있다. 위기의 순간, 내 옆에 있던 어수룩하고 덩치 큰 남자가 안경을 벗고 빨간 망토를 걸친 채 슈퍼맨이 되어 나타나는 영화 속 반전의 순간처럼, 거짓말 같이 우리 주변에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히든카드가 남아있다. 더욱이 이 히든카드를 자동차처럼 비싼 비용을 지불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기반 시설에 좌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오랜 기간 우리 옆에서 차근차근 진화해왔다.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고? 당신의 집에도 이미 있을지도 모른다. 깜짝 놀랄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상쾌한 샤워에 함께하고, 겨울철 우리집 난방을 책임지는 콘덴싱보일러다.

1988년 아시아 최초로 경동나비엔이 개발해 선보인 콘덴싱보일러는, 사용하고 남은 배기가스 속 숨은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재활용하여 물을 데우는 효율적인 보일러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1/5 수준으로 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여, 파리 협약으로 다시 한번 전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때문에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럽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지원하거나, 의무화해 콘덴싱보일러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보일러 시장인 영국에서는 90% 이상이 콘덴싱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9년이라는 콘덴싱보일러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10가구 중 2가구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기회를 꽤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말처럼 아직 기회는 충분하다. 조금만 눈을 돌려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금 당장, 나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움직임에 함께할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된다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푸른 미래를 그리고 싶다면 이제 우리 집에도 미세먼지 잡는 콘덴싱보일러라는 히든카드를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닐까.



도시의 여름을 식히는 옥상정원

푸르른 정원으로 꾸며진 건물 옥상에 가본 적이 있는가. 보기에 좋지만 그 안에 숨은 효과도 만만치 않다. 옥상정원은 도시의 녹지 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여름마다 도시가 뜨겁게 달궈지는 열섬 현상을 해소하여 냉방에너지를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겨울에는 건축물에 보온 효과를 발휘하여 난방에너지를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 호우에 견딜 수 있는 탁월한 배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 홍수를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지난 4월에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옥상정원에 일반토양을 사용할 경우 적지 않은 하중으로 건축물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인공토양은 일반토양 대비 1/3에서 1/6까지 하중을 줄일 수 있어 옥상정원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옥상정원 시장의 70% 이상에 토양을 공급하며 인공토양의 대명사로 불리는 '파라소'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순수 무기질 토양으로 최상의 생육환경을 만든다. 올 여름 더위도 지난해 못지 않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어컨을 점검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내가 사는 건물의 옥상을 살펴보는 일이 아닐까. 옥상정원이 뜨거운 도시의 거대한 에어컨이 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4회 연속 획득



경동나비엔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인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업계 최초로 4회 연속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다. 경동나비엔은 2011년 보일러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후 2년마다 실시되는 재인증 평가를 모두 통과해 4회 연속 CCM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에서도 ‘Touch Spirit(고객의 마음에 감동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사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불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객의 소리(VOC)’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서비스 관리 시스템(CIC) 구축, 서비스기사 등록제 운영, 기술상담센터 운영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경동나비엔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8년 연속 보일러 산업부문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동절기에 제품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추운 날씨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보일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담 시스템 운영과 친절한 응대에 주력함으로써 소비자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동나비엔은 고객 만족 달성을 목표로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보일러 원격제어 기술을 통해 제품에 문제 발생시 먼저 감지해 고객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서비스 기사 출장까지 지원하는 사전 서비스 개념의 ‘프리미엄 원격 케어 서비스’도 업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일러 업계 최초 영상지원 서비스인 ‘나비엔 영상지원’을 개시했으며 올해는 서비스 접수 및 조치 완료 시 소비자에게 알림톡을 보내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더불어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서비스를 신청해 처리되는 경우, 부모에게 해피콜을, 자녀에게 서비스 결과를 알려주는 ‘부모 안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경동나비엔만의 효(孝) 감성을 서비스에서도 구현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친환경 기술로 중국사업 발전 가속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콘덴싱보일러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대기질 개선에 새로운 해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북경시가 2015년부터 가스보일러에 대한 NOx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 주택에는 1등급 콘덴싱보일러만 설치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용 중인 석탄보일러를 모두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친환경 콘덴싱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으로 경동나비엔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최대 규모의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China & CIHE 2017’에 7년 연속으로 참가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동나비엔, 녹색 미래를 완성하는 에너지와 환경의 선도자’를 콘셉트로, 신제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와 프리미엄 온수기 및 상업용 보일러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전시하며 새로운 한류를 예고했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지난 3월 중국 내 최대 가전유통업체 중 하나인 오성전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냉보, 난방 등 오성전기의 프리미엄 매장을 시작으로 구매력이 높은 화동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법인, 권역별 서비스센터 컨퍼런스 진행



경동나비엔 러시아법인이 현지 지역별 서비스 센터 간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서비스센터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러시아 남부지구의 스타브로폴 도시에서 개최된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는 남부 및 북카프카즈 지역의 주요 서비스센터 20개 업체에서 참석하여 지역별 현안 협의 및 경쟁사 동향 파악, 나비엔 신제품 라인업 소개, 기술세미나와 A/S사례 및 품질 관련 필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더불어 러시아 현지의 우수 서비스센터 및 우수 서비스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2011년 이후 러시아에서 꾸준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경동나비엔은 후발 주자라는 불리함을 딛고 러시아의 불안정

한 전압과 혹독한 추위, 강한 바람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기술력이 담긴 제품으로 승부하여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최고의 품질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제품에 수여되는 ‘러시아 국민브랜드’에 보일러 업계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마라톤대회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콘덴싱보일러 홍보



경동나비엔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17 여성마라톤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여성신문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여성마라톤대회'는 '오늘의 나, 내일을 달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총 8000여 명이 참가했다. 경동나비엔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콘덴싱보일러'를 주제로 홍보 부스를 꾸미고, '콘덴싱보일러의 가장 큰 매력 뽑기', '북극곰과 기념사진 찍기', '미세먼지에 갇힌 북극곰 구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동나비엔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도 참가하여 홍보

깃발을 들고 콘덴싱보일러를 알렸다. 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온실효과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이벤트 중 특히 '미세먼지에 갇힌 북극곰 구하기' 이벤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 뽑기 형식으로 북극곰 인형을 뽑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앞으로도 업계를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콘덴싱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맑은 하늘 만들기 박람회'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맑은 하늘 만들기 박람회'에 참가해, 난방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알리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 전기차, 콘덴싱보일러 등 미세먼지 저감 기술 보유 기업들이 참가했다. 난방 기업을 대표하여 참석한 경동나비엔은 이번 행사에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콘덴싱 바로 알기 퀴즈, 친환경의 상징인 북극곰과 인증샷 촬영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79%까지 저감시키는 콘덴싱보일러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그간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난방 분야는, 최근 서울연구원이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PM 2.5) 주요 배출원 중 난방·발전 부문은 2011년 27%에서 지난해 39%로 12% 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크다."고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다.

경동원, 무기계 마스틱 내화도로 'MASCOAT-F', 3시간 시공두께 더 낮춰



경동원 세라텍사업부의 무기계 마스틱 내화도로 'MASCOAT-F'의 3시간 제품이 시공 두께를 더 낮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추가 내화구조인정을 획득하였다. '마스틱 내화도로'란 철골 기둥 및 보에 도포하는 건축 자재로, 화재 발생시 뜨거운 화염에도 견딜 수 있어 건물 붕괴를 지연시키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2월에 이미 국내 최저 두께(보 12mm, 기둥 11.85mm)로 3시간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의 큰 반향을 일으킨 후, 보는 10.3mm, 기둥은 10.4mm로 두께를 더 낮춤으로써 무기계 마스틱 내화도로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최저 두께로도 3시간 내화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MASCOAT-F'는 일반적으로 두꺼운 유기 에폭시계 내

화도로보다 시공 횡수를 줄여 전체 공사 비용을 절감시키고 미려한 건축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최저 두께로도 3시간 내화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MASCOAT-F'는 얇은 두께로 최고의 내화성능을 구현하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축의 거장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광화문 KT신사옥을 비롯하여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관 일산병원 등에 적용되고 있다.

경동원, 국내 최초 무선기반 홈IoT 시스템 출시



경동원이 지난 5월 28일, 국내 최초로 무선 기반의 홈IoT 시스템인 스마트 크래들 'UHN-C100'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UHN-C100은 기존 홈네트워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해 단점으로 지적됐던 '조작을 위해서는 결국 벽에 고정된 홈네트워크 기기로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극복한 새로운 개념의 홈IoT 솔루션이다. 하나의 기기로 냉난방은 물론, 가스, 조명 등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서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와 이를 거치할 수

있는 크래들로 제품을 구성함으로써 집안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나에게 맞는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UHN-C100은 이전에 출시된 홈네트워크 제품의 기능에 외부에서도 어플을 통해 실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홈뷰' 기능과 부재 중에도 방문자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방문자 영상 통화' 기능이 추가되어 홈네트워크 본연의 기능 역시 강화되었다. 스마트 크래들 UHN-C100은 출시와 동시에 쌍용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쌍용에가 더 퍼스트' 밀양 내이동 모델하우스에 실제 제품이 적용되어 스마트한 생활환경 제어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방건설, 동아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의 홍보관에 적용되거나 분양될 예정이다.

나비엔과 #소통하세요!

다양한 이벤트,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나비엔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www.kdnvien.co.kr



국내 최 소형 Slim 디자인

최고 수준의 온수 제어 성능
(TDR 7:1/전 제품 막상밸브 적용)

실시간 스마트 공기감시 기술
(APS 시스템)



가스온수기도 스테인리스가 **옳았다** 경동나비엔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답게 일반 온수기까지 스테인리스로
경동나비엔 스테인리스 가스 온수기

[고객문의] 1588-1144 [설비업체 전용 문의] 1899-1914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1% 차지 (2017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대한민국 최초로 콘덴싱을 개발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스비가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했다

보일러 하나가 이제 모두의 지구를 지킨다

콘덴싱이 올랐다



1988년 대한민국 최초
콘덴싱보일러 개발

1999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환경마크 획득

2000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KS 인증 획득

2009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2015년 북미
콘덴싱보일러 & 온수기 1위

2016년 업계 최초
러시아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 국민브랜드 선정



NCB 900

29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록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3.1% 차지 (2016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콘덴싱 29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